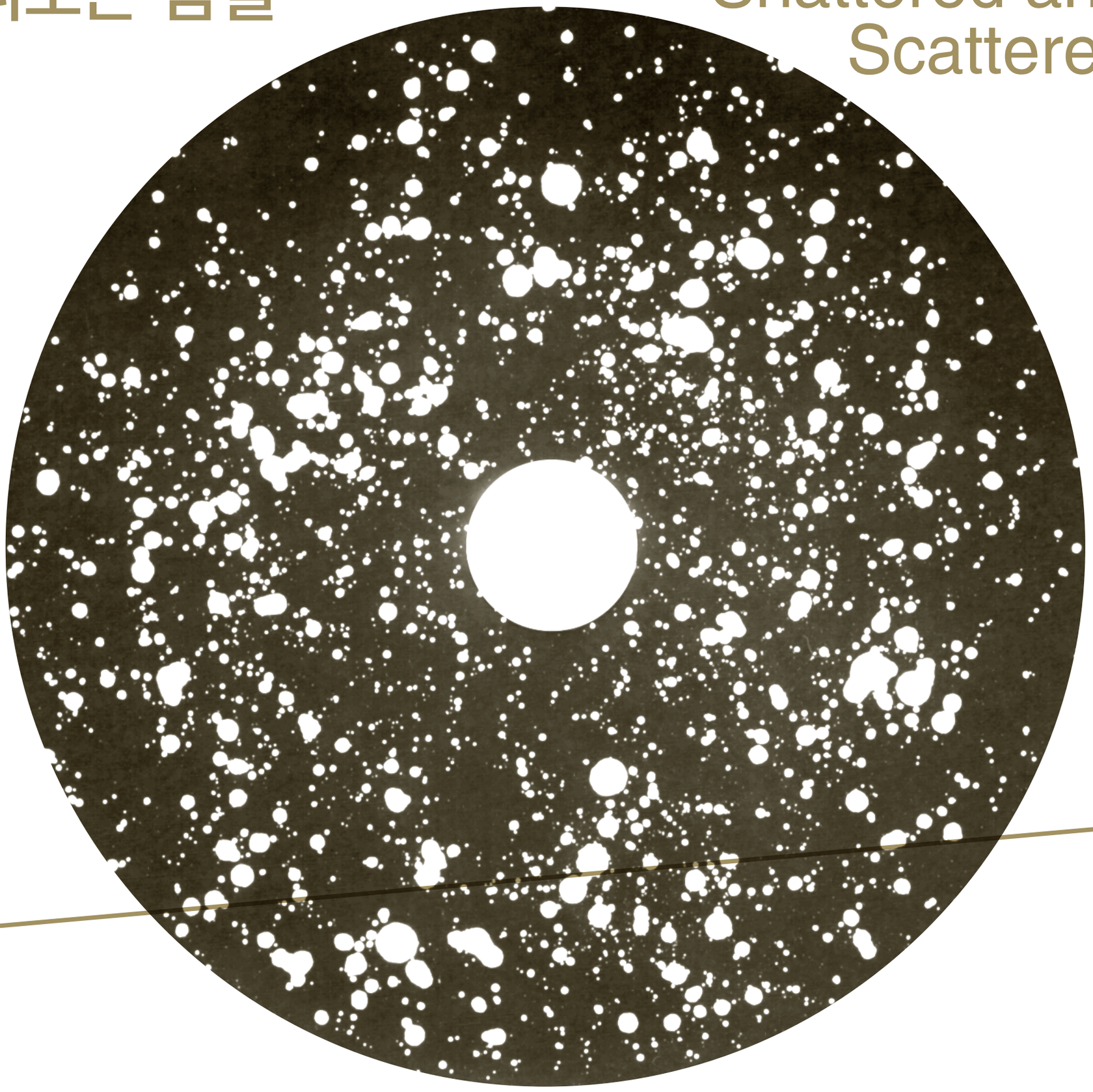
# 떠도는 몸들

# Shattered and Scattered



떠도는 몸들은 지난 2014년에 개최된 아프리카 나우: Political Patterns 전시의 연장선상에서 선보이는 스크리닝 프로그램으로써, 아프리카–유럽–중앙아시아–한국으로 이어지는 이주자의 정체성 및 디아스포라의 지형도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글로벌 문화의 새로운 방향에 대하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80–90년대 영국에서 흑인 영화 르네상스를 주도하며 왕성한 활동을 벌였던 블랙 오디오 필름 콜랙티브의 작품과 함께,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으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소수민족인 고려인의 디아스포라에 관한 영화를 선보이고 있는 송 라브렌티 감독, 그리고 한국 안산에서 거주 중인 고려인들의 삶을 조망하는 김 정 감독의 영화를 함께 상영하여 이들의 시선과 재현으로 기록된 이주와 이산의 기억을 통해 디아스포라의 미학을 고찰하는 자리를 가진다.

Shattered and Scattered is a screening program in line with the exhibition last year, Africa Now : Political Patterns. It examines the identity of immigrants from Africa, Europe, Central Asia to Korea and the topography of diaspora and discusses the new direction of global culture. Works of Black Audio Film Collective that led the renaissance of Black film in Britain in the 1980s and 90s, Lavrenti Son, a Kazakhstan born Korean film director with major interests in Korean diaspora, ethnic minority of Korean descendents, spread from Russia to Central Asia and Kim Jeong, the film director who explores the lives of Koryeo-saram living in Ansan, Korea are presented to reflect on the aesthetics of diaspora through the memories of migration and diaspora documented in the eyes and representation of these directors.

# 블랙 오디오 필름 콜렉티브

# Black Audio Film Collective

블랙 오디오 필름 콜랙티브(BAFC)는 존 아캄프라, 리스 오귀스테, 에드워드 조지, 리나 고폴, 에이브릴 존슨, 데이비드 러슨, 트래버 매티슨에 의해 1982년 런던 해크니에서 창설되었다. 이는 샌코파, 세도, 리테이크 등과 같이 1980년대 초중반 영국에서 만들어진 여러 콜랙티브 중 하나였다. 채널 4의 설립과 ACCT 워크숍 선언을 시작으로(모두 1982년) 창조적인 독립활동이 장려되었던 이 시기는 대처리즘의 시장주의가 성장하던 때이기도 하다. BAFC는 테이프 슬라이드를 활용한 몇 차례의 실험을 거쳐 1980년대 영국 도큐멘타리의 가장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내 놓았다. 비평가들은 핸즈워스의 노래(1986)의 정치적 측면과 형식적 실험정신에 대해 극찬했다. 1980년대 민간인 소요사태로 굴절된 흑인의 역사를 재현한 이 필름은 한 단체가 주류 언론의 활동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어떻게 소외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지녔다. BAFC의 1990년대 작업 역시 기억과 역사에 대한 그들의 실험정신을 잘 나타낸다. 심장을 필요로 하는 자(1991)는 1960년과 1970년대 영국 내 흑인 영향력의 대두를 탐구한다. 또한 말콤 엑스 (말콤 엑스를 위한 7가지 노래, 1993)와 마틴 루터 킹 (마틴 루터 킹, 1997) 두 우상을 논하기도 한다. 두 필름 모두 대상을 대하는 BAFC의 전형적인 자세 즉, 비평적인—그러나 기념적인—자세를 잘 보여준다. BAFC는 재현의 정치학에 대한 논의의 선두에 서있었다. 작업을 통해 그들은 "인종 정체성은 사회적, 정치적 역사에서 자라나는 것으로...이러한 인종적 차이의 대한 복합성을 인지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역사를 확인하고자 자신들의 이미지에 대해 묻는다." BAFC는 1998년 해체했으나 구성원들—특히 아캄프라—은 개인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The Black Audio Film Collective(BAFC) was formed by John Akomfrah, Reece Auguiste, Edward George, Lina Gopaul, Avril Johnson, David Lawson and Trevor Mathison in Hackney, London in 1982. It was one among many such collectives founded in Britain during the early- to mid-1980s—including Sankofa, Ceddo and ReTake. This period was characterised by the founding of Channel Four and the ACCT Workshop Declaration (both 1982), which encouraged innovative independent work, and on the other hand by the increasingly free market ideology of Thatcherism. After producing some tape-slide experiments, BAFC produced some of the most challenging and experimental documentaries in Britain in the 1980s. Handsworth Songs (1986) has been critically acclaimed for its political commitment and formal experimentation. The film's representation of Black history refracted through the civil disturbances of the 1980s was influential because it engaged with precisely how a group can be marginalised by the practices and ideology of mainstream media. The Collective's work in the 1990s was characterised by the same experimental interest in memory and history. Who Needs a Heart (1991) explores the emergence of Black Power in Britain in the 1960s and 1970s. They also tackled the iconic figures of Malcolm X (Seven

Songs for Malcolm X, 1993) and Martin Luther King (Dr Martin Luther King—Days of Hope, 1997). Both these films epitomise the critical—yet celebratory—attitude that the Collective has taken to all its subjects. The Collective was at the forefront of debates about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their work argues that "their racial identities grow out of their social and political histories; they call for a recognition that these racial differences are multiple and complex... they interrogate their own images to confirm their histories". BAFC dissolved in 1998, though its members continues to work individually most notably Akomfrah.

## 핸즈워스의 노래
## Handsworth Songs

1986, UK, 16mm,
sound, colour, 59min.
Courtesy of
Black Audio Film Collective
and LUX, London

1985년 10월 영국에서는 버밍험의 핸즈워스를 비롯하여 런던 내 도심지역에 민간인 소요사태가 잇따라 발생했다.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노년의 흑인 여성 조이 가드너와 백인 경찰 키스 블레이크로크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핸즈워스의 노래는 이러한 사건들과 시위대나 그들의 동기를 악마화 또는 정당화 시키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국 매체의 무능으로부터 시작하여 영국 내 흑인의 존재에 대한 병적인 불안 반응을 파기하고자 했다. 핸즈워스의 노래는 동시대의 보도 프레임 밖의 사건들에서 불안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시위를 특징짓는 불만의 표현에 대해 정서적 영향이 거의 없어 보이는 순간들—작품 속 흑인의 (무)소속의 기록으로 변형된, 전후 영국 내 인종에 대한 뉴스 보도 기록과 잔인하게 미뤄진 소속에 대한 희망의 표현—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In October 1985 Britain witnessed a spate of civil disturbances in the Birmingham district of Handsworth and in urban centres of London. These were violent, tragic events, marked by the death of an elderly black woman, Joy Gardner and a white policeman, Keith Blakelock.

Handsworth Songs takes as its point of departure these events and the inability of the British media to go beyond its concern with demonising or rationalising the rioters and their motives, to break the anxiety-driven loop of morbid responses to the presence of blacks in Britain. Handsworth Songs contends that the meaning in the malaise is to be found in events outside the frame of contemporary reportage, in moments which seemed to have little affective relation to the expressions of discontent which characterised the riots — in the annals of post war news reportage around race in Britain, transformed in the film into an archive of black (un)belonging, in the expression of hopes of belonging brutally deferred.

## 말콤 엑스를 위한 일곱 가지 노래
## Seven Songs for Malcolm X

1993, UK, SD video, sound, colour, 52min.
Courtesy of Black Audio Film Collective and LUX, London

BAFC의 7번째 필름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혁명가의 삶과 죽음을 그린다. 이는 소설가 토니 케이드 밤바라와 연기자 지안카를로 에스페지토의 나레이션이 설명하듯 일곱 파트의 성상연구로 구성된다. 베티 샤바즈, 스파이크 리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극적인 재연을 통해 그의 인생, 유산, 사랑, 죽음을 이야기한다. 양식화된 말콤의 타블로비방은 제임스 반 데 지의 사자의 서에 나타나는 20세기 초 장례 사진과 세르게이 파르자노프 작 석류의 빛깔을 대표하는 정적인 촬영 기법을 참조했다.

The Collective's seventh film envisioned the death and life of the African American revolutionary as a seven part study in iconography as narrated by novelist Toni Cade Bambara and actor Giancarlo Espesito. The film collects testimonies, eyewitness accounts and dramatic reenactments to tell the life, legacy, loves, and losses of Malcolm X, featuring interviews with his widow Betty Shabazz, Spike Lee and many others. The stylized tableaux vivants that memorialise Malcolm's life referenced the early 20th century funeral photography of James Van der Zee's The Harlem Book of the Dead and the elemental static cinematography of Sergei Paradjanov's The Colour of Pomegranates.

## 마지막 천사
## Last Angel of History

1995, UK, SD video, sound, colour, 45min.
Courtesy of Black Audio Film Collective and LUX, London

마지막 천사는 1990년대 가장 영향력 있는 비디오 에세이로 영화제작자, 컨퍼런스, 소설, 전시 등 다방면에 영감을 주었다. 흑인의 비인기 문화와 우주공간, 인간사의 한계를 연결시켜주는 미래의 신화는 디지털 영상에서의 반음계의 가능성에 대한 BAFC의 탐구를 내포한다. 아콤프라의 분석은 펑크마스터 조지 클린턴과 그의 앨범 마더십 커넥션Mothership Connection, 선 라의 외계인 성상과 같은 범아프리카 작가들의 문화적 작업과 사무엘 딜라이니와 옥타비아 버틀러 두 흑인 공상과학 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이 이슈들의 분명한 연계에 대한 탐구에 기반한다. 작품에는 자신들의 음악에 있어서 조지 클린턴의 중요성을 조지 클린턴에게 얘기하는 DJ 스푸키, 골디, 데렉 메이 등의 흑인 뮤지션들의 인터뷰도 담겨있다. 미래라는 필름의 취지를 유지하는 한편 상이한 역사적 시기의 범아프리카 생활상을 삽입하여 록 비디오나 인터넷 서핑의 양상과 유사하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다.

The Last Angel of History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video-essays of the 1990s, influencing filmmakers and inspiring conferences, novels and exhibitions. BAFC's exploration of the chromatic possibilities of digital video is embedded within a mythology of the future that creates connections between black unpopular culture, outer space and the limits of the human condition. Akomfrah's analysis is rooted in an exploration of the cultural works of Pan-African artists, such as funkmaster George Clinton and his Mothership Connection, Sun Ra's use of extra-terrestrial iconography, and the very explicit connection drawn between these issues in the writings of black science fiction authors Samuel R. Delaney and Octavia Butler. Included are interviews with black cultural figures, from musicians DJ Spooky, Goldie, and Derek May, who discuss the importance of George Clinton to their own music, to George Clinton himself. In keeping with the futuristic tenor of the film, the interviews are intercut with images of Pan-African life from different periods of history, jumping between time and space from the past to the future to the present, not unlike the mode of many rock videos or surfing the Internet.

# 송 라브렌티

# Lavrenti Son

송 라브렌티 감독은 1941년 2월 2일 카자흐스탄 딸듸꾸르간주 우슈토베에서 태어났다. 그는 카자흐스탄에서 희곡작가, 소설가,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희곡작가, 특히 영화 각본 작가나 예술 영화 감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1963년 9월 모스크바에 있는 소련 전연방국립영화학교(전국국립영화대학)에 고려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입학하여(시나리오 학부) 1967년에 졸업하였다. 학업을 마친 후 1967년 카자흐스탄 영화제작소 '카작필림'에 전임 시나리오 작가로 입사하여 1985년 8월까지 영화 각본 작가와 예술 영화 감독으로 일하였다. 영화감독 활동은 1976년부터 시작되었다. 1985년 9월부터 1987년 1월까지 조선극장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다가, 다시 카작필름 배우 양성소로 직장을 옮겨 1989년 2월까지 총기획자로 일하였다. 1989년 3월에 직장을 떠나 개인 영화사인 '송 시네마'(Song Cinema)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기록영화를 주로 제작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주로 소수 인종에 대한 기록 영화로서 인종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이 작품들 중에서 숙달된 경제와 고려사람, 묘지 방문은 중앙아시아 고려인에 대한 영화이다. 그는 이들 기록 영화를 통해 독일민족, 러시아 구교도, 발하쉬 호수가에 사는 스웨덴 사람, 흑룡강 하류와 북사할린의 니브흐 인종, 하라봅스크 남부의 오로치 민족, 시베리아 북쪽의 칼르마강 근처에 사는 유카기르라는 종족, 카자흐 민족, 위그르 핀족의 하나인 한틔 민족, 터키 민족 등에 대해 인류학적인 성찰을 시도했다.

Lavrenti Son was born in Ushtobe, part of the Taldy-Kurgan province, Kazakhstan on February 2, 1941. In Kazakhstan, Song is a play writer, novel writer and film director. Yet he is most known for his film scenarios or as a film director than a play scenario writer. In September 1963, he became the first Koryo-saram to enter into the All-Union State Institute of Cinematography(Scenario Department) and graduated in 1967. Finishing his studies, he worked at Kazakh Film from July 1967 to August 1985 as a scenario writer and film director. His career as a film director started in 1976. From September 1985 to January 1987, he was employed by the Korean Theater as the general director. Thereafter he moved to Kazakh Film Training Center for the same position, working till February 1989. In March 1989 he left to found his own film studio 'Song Cinema' where he has been mainly producing documentary films. These works are mostly documentary films of ethnic minorities with profound reflections upon ethnic identity. Mastery of economy, Koryo Saram and Visit to the Cemetery are those about Koryo-saram in Central Asia. Through these documentary films he attempts to explore Germans, Russian Roman Catholics, Swedish living nearby the Balkhash lake, the Nivkh in Northern Sakhalin, the Orochi in southern Khabaropsk, the Yukaghir living near the Kolyma River in north Siberia, the Kazakh, the Khanty and Turkish with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 약속의 땅
## Land of Promise

2011, KZ, SD video,
sound, colour, 110min.

약속의 땅은 1997년 고려극장에서 초연된 송 라브렌티의 희곡 기억을 영화로 재구성한 것이다. 카자흐스탄 독립 20주년 기념영화로 제작된 이 작품은 1937년 단행된 고려인의 강제 이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송 라브렌티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체첸, 독일, 터키, 아제르바이잔 등지에서 이주한 다양한 이민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담고 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 체험한 타인의 환대와 공동체 의식을 복원해낸 약속의 땅은 디아스포라에게 조국이란 다름 아닌 기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Land of Promise is a remake film of Son's play Memory premiered at the Korean Theater in 1997. Dedicated to the 20th anniversar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background of the film is the deportation of Koreans in 1937. It shows a community consisting of different immigrants from Chechen, Germany, Turkey, Azerbaijan and their life based on his own experience. Land of Promise restores community spirit and hospitality experienced in a history of hardship contending that for diaspora nation is nothing but memory.

## 고려 사람
## Koryo Saram

1992, KZ, SD video,
sound, colour, 27min.

고려 사람인 송 라브렌티 감독이 '고려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이 다큐멘터리에는 감독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고려 사람도 등장하지 않는다. 소비에트 체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강제 이주, 그리고 집단농장에서의 경험은 다양한 민족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낳았다. 감독이 촬영한 지역은 특히 고려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었고, 이로 인해 고려 말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러시아, 쿠르드인 등 4명의 인물이 우리 앞에 등장한다. 강제 이주의 참혹한 역사로 우리에게 주로 알려진 고려인은 이 작품에서 드러난 집단 농장에서의 다양한 민족들 간 교류의 흔적을 통해 또 다른 두터운 역사의 두께를 품은 채 관객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In this film titled 'Koryo-saram,' no Koryo-saram other than the director himself appears. The deportation executed under the Soviet Union and life at the kolkhoz led to exchange among diverse ethnicities. The film was shot in an area with high Korean population and a Ukrainian, a Kazakhstani, a Russian and a Kurdish who could speak fluent Korean as a result appear at the front. Koreans who are mostly known for their brutal history of deportation comes toward with its multi-layered history through

traces of interethnic exchange in the kolkhoz unveiled in the film.

## 교장선생님
## The Principal

1999, KZ, SD video,
sound, colour, 38min.

우주베키스탄 타슈켄트주에는 인력이 부족해 직접 전교생에게 수학과 물리를 가르치는 교장 선생님이 있다. 러시아-카자흐 중등학교 교장이자 강제 이주된 고려인의 후손인 윤 미하일이다. 송 라브렌티 감독은 윤 미하일이 살아 온 삶의 궤적과 그가 속한 볼셰비크 집단농장의 일상을 씨실과 날실처럼 엮어 교장 선생님을 완성했다. 영화 마디마다 망향가를 부르는 노인들의 모습이나 벡쩨미르 지역의 고려인들이 환갑잔치를 치르는 풍경이 삽입되면서 영화는 윤 미하일 개인의 역사 뿐 아니라 강제 이주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집단 기억을 함께 어루만진다.

In Tashkent, Uzbekistan, was a principal who taught mathematics and physics to the students himself from lack of teachers. Yun Mikhail, the principal of Russia–Kazakh secondary school and descendent of deported Korean. Son weaved the story of The Principal with traces of Yun Mikhail's life on one hand and daily lives of Bolshevik kolkhoz on the other. By Inserting scenes with the elderly singing nostalgic song or Koreans having 60th birthday celebrations in Bektemir allows the film to embrace not just the story of Yun Mikhail but also the collective memories of those who are left after the deportation.

## 사랑했기 때문에
## Because he loved...

2001, KZ, SD video,
sound, colour, 30min.

고려인 김 유리 알렉세예비츠(1940–2000)는 카자흐스탄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장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고려인으로서 카자흐스탄의 최고위직에 오른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가족, 친지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별도의 내레이션 없이 그들의 인터뷰와 생전의 김 유리 알렉세예비츠의 모습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차분하게 그려낸다. 서정적인 음악이 분위기를 더한다.

Kim Yuri Alekseyevich(Korean, 1940–2000) served as the Chairma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equivale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Mourning the death of Alekseyevich who made a ranking position among Koreans, families, relatives and many others talk about him. Without separate narrations, it focuses on the interviews of Alekseyevich before his death, calmly depicting the life of Alekseyevich along with lyrical music.

음악선생님
Music Director

1998, KZ, SD video,
sound, colour, 40min.

1941년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되어 살던 볼셰비크 집단농장에, 그곳으로 유형 온 유대인 지휘자 일리야 모이세예비츠가 있었다. 그는 5년 동안 이 집단농장의 음악선생님이었다. 낯선 땅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야했던 그와 고려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였다. 송 라브렌티는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 그가 남긴 음악 등을 통해 그의 삶을 되살려낸다. 한편, 그는 약속의 땅에서 동명의 인물로 재현되기도 한다.

Ilya Moiseevich was a Jewish conductor exiled to Bolshevik kolkhoz where Koreans were deported in 1941. He was a music teacher in the kolkhoz for 5 years. As immigrants in a strange land, he and the Koreans relied on each other. Song envisions Moiseevich's life through the testimony of those who remember him and the music he left. Moiseevich is also represented in Land of Promise as namesake character.

# 김 정

# Kim Jeong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 후 여성사 다큐멘터리 삼부작 거류(2000), 황홀경(2003), 원래 여성은 태양이었다(2004)와 디지털 단편 옴니버스 프로젝트 이공(異共), 장편 극영화 경(2010) 등을 연출하였다. 2000년 제1회 고정희 상을 수상하였으며, 일본 야마가타다큐멘터리영화제와 제1회 EBS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멕시코 구아나후아토 국제영화제 Guest of Honor 특별전을 비롯한 유수의 영화제들에서 작품이 초청, 상영된바 있다.

After graduating from Korean Academy of Film Arts, Kim Jeong has directed and screened Women's History Trilogy (2000–2004)—Koryu: Southern Women/South Korea (2000), I'll Be Seeing Her: Images of Women in Korean Cinema/Hwangholgyeong (2003), New Woman: Her First Song (2004), digital short film omnibus project movie Twentidentity and the feature length fiction film entitled Viewfinder (2010) at Yamagata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EBS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in Seoul, Guanajua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Guest of Honor Special Screening. She also got awarded Ko Chonghui Prize in 2000.

## 눈의 마음 : 슬픔이 우리를 데려가는 곳
## Heart of Snow, Heart of Blood (SeMA Ver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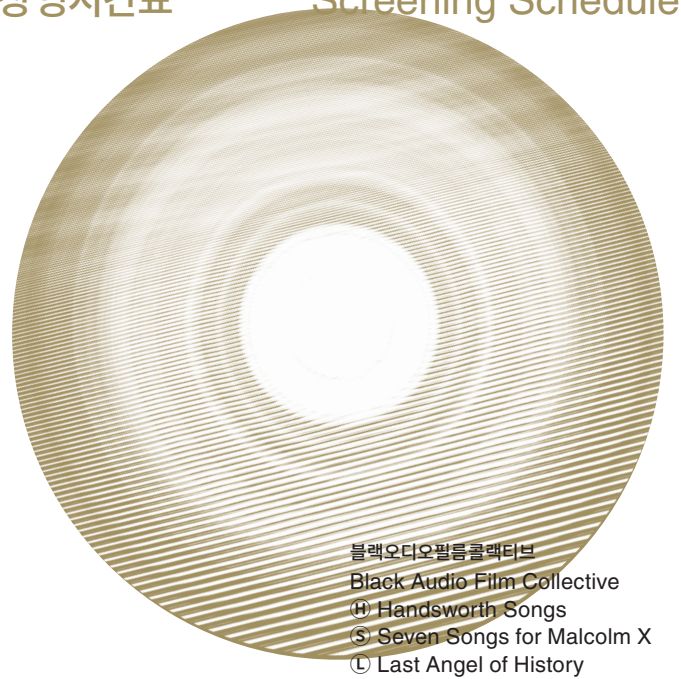
2014, KR, SD video, sound, colour, 25min.

이주와 망명과 유랑의 노래. 망명 삼부작 중 제1편이다. 중앙 아시아의 탈북 감독, 고려극장의 디바 이야기가 삼부작을 구성하게 된다. 한국 안산에서 만난 고려인 3세 김 알렉스와 부인 허스베타, 조카 나타샤의 삶과 나타샤 할머니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이야기가 안산과 중앙아시아를 오가며 교차된다. 1937년, 강제 이주라는 집단 기억을 공유한 고려인들을 통해, 공동체의 역사, 기억, 트라우마라는 원초경을 마주한다. 그 원초경에 연출가 자신의 애도의 시간도 흘러든다. 이 다큐는 우즈벡의 나타샤 할머니의 "역사적 조국"에 가보고 싶다는 소원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카자흐스탄 영화감독 송 라브렌티, 우즈벡에서 한국 안산으로 온 이주 노동자 김 알렉스와 그의 부인 허스베타를 비롯하여 고려인들의 역사와 일상의 크고 작은 무늬들이 보여진다. 러시아어, 고려어, 한국어 세 언어들의 프리즘 속에 다른 세계, 풍경, 삶이 펼쳐진다.

This work will compose Exile trilogy: Heart of Snow, Heart of Blood, North Korean Refugee directors, Diva: Sound of Nomad. We pass through Kyrgyzstan and Kazakhstan, surrounded by the Tian Shan mountains which gaze at us. We hear the collective memory and historical trauma of the forced migration in 1937. The prismatic world of three languages—Russian,

Korean and Koryo. The people who lived through that cold winter days. A tale of survival and revival over the last 150 years from Korea, Russia and Central Asia. Fragments of life beyond the grasslands, hills, snowy mountains, and the blue road. Now I see them leave for another world.

#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블랙오디오필름콜렉티브
Black Audio Film Collective
Ⓗ Handsworth Songs
Ⓢ Seven Songs for Malcolm X
Ⓛ Last Angel of History

## 화요일 Tuesdays

10:00—12:00
송 라브렌티, 약속의 땅
Lavrenti Son,
Land of Promise

12:00—15:00
블랙오디오필름콜랙티브
Black Audio Film
Collective
Ⓢ Ⓗ Ⓛ

15:00—16:40
김정, 눈의 마음
Kim Jeong,
Heart of Snow

16:40—19:00
송 라브렌티, 단편
Lavrenti Son,
Short Films

## 수요일 Wednesdays

10:00—12:20
송 라브렌티, 단편
Lavrenti Son,
Short Films

12:20—14:00
김정, 눈의 마음
Kim Jeong,
Heart of Snow

14:00—17:00
블랙오디오필름콜랙티브
Black Audio Film
Collective
Ⓛ Ⓢ Ⓗ

17:00—19:00
송 라브렌티, 약속의 땅
Lavrenti Son,
Land of Promise

## 목요일 Thursdays

10:00—12:00
송 라브렌티, 약속의 땅
Lavrenti Son,
Land of Promise

12:00—15:00
블랙오디오필름콜랙티브
Black Audio Film
Collective
Ⓗ Ⓛ Ⓢ

15:00—17:20
송 라브렌티, 단편
Lavrenti Son,
Short Films

17:20—19:00
김정, 눈의 마음
Kim Jeong,
Heart of Snow

## 금요일 Fridays

10:00—13:00
블랙오디오필름콜랙티브
Black Audio Film
Collective
Ⓗ Ⓛ Ⓢ

13:00—15:20
송 라브렌티, 단편
Lavrenti Son,
Short Films

15:20—17:00
김정, 눈의 마음
Kim Jeong,
Heart of Snow

17:00—19:00
송 라브렌티, 약속의 땅
Lavrenti Son,
Land of Promise

## 토요일 Saturdays

10:00—12:20
송 라브렌티, 단편
Lavrenti Son
Short Films

12:20—14:00
김정, 눈의 마음
Kim Jeong,
Heart of Snow

14:00—16:00
송 라브렌티, 약속의 땅
Lavrenti Son,
Land of Promise

16:00—19:00
블랙오디오필름콜랙티브
Black Audio Film
Collective
Ⓛ Ⓗ Ⓢ

## 일요일 Sundays

10:00—13:00
블랙오디오필름콜랙티브
Black Audio Film
Collective
Ⓗ Ⓢ Ⓛ

13:00—15:00
송 라브렌티, 약속의 땅
Lavrenti Son,
Land of Promise

15:00—17:20
송 라브렌티, 단편
Lavrenti Son,
Short Films

17:20—19:00
김정, 눈의 마음
Kim Jeong,
Heart of Snow

전시연계 강연프로그램
Lecture Series

SeMA홀

2015.03.25, 17:00
이용우 Yongwoo Lee
(레이던대 Leiden Univ.)

2015.04.01, 17:00
사카이 나오키 Sakai Naoki
(코넬대 Cornell Univ.)

2015.04.15, 17:00
김소영 Soyoung Kim
(한예종 K-Arts)

2015.04.22, 17:00
하승우 Seungwoo Ha
(한예종 K-Arts)

2015.04.29, 17:00
김정구 Jungkoo Kim
(한예종 K-Arts)

떠도는 몸들
2015.03.10—2015.05.17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프로젝트 갤러리

블랙 오디오 필름 콜랙티브,
송 라브렌티, 김정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협력
LUX, 한국예술종합학교
트랜스아시아영상문화연구소

학예총괄
선승혜 (학예연구부장)
전시총괄
임근혜 (전시과장)
담당큐레이터
신은진 (전시과)
그래픽디자인
테이블유니온
공간디자인 컨셉
소사이어티 오브 아키텍처(SoA)

Shattered and Scattered
10 March — 17 May 2015
Seoul Museum of Art, Main
Building, Project Gallery

Black Audio Film Collective,
Lavrenti Son, Kim Jeong

Organised by
Seoul Museum of Art
Supported by
LUX, K-Arts TASCI

Supervisor
Seunghye Sun
(Head of Curatorial Bureau)
Keunhye Jade Lim
(Exhibition Division)
Curator in Charge
Regina Shin
(Exhibition Division)
Graphic Design
Table Union
Exhibition Design Concept
Society of Architecture(SoA)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1
T. 02 2124 8800
sema.seoul.go.kr

관람시간
화–금 AM10–PM8
토, 일, 공휴일 AM10–PM7

뮤지엄데이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PM10까지 연장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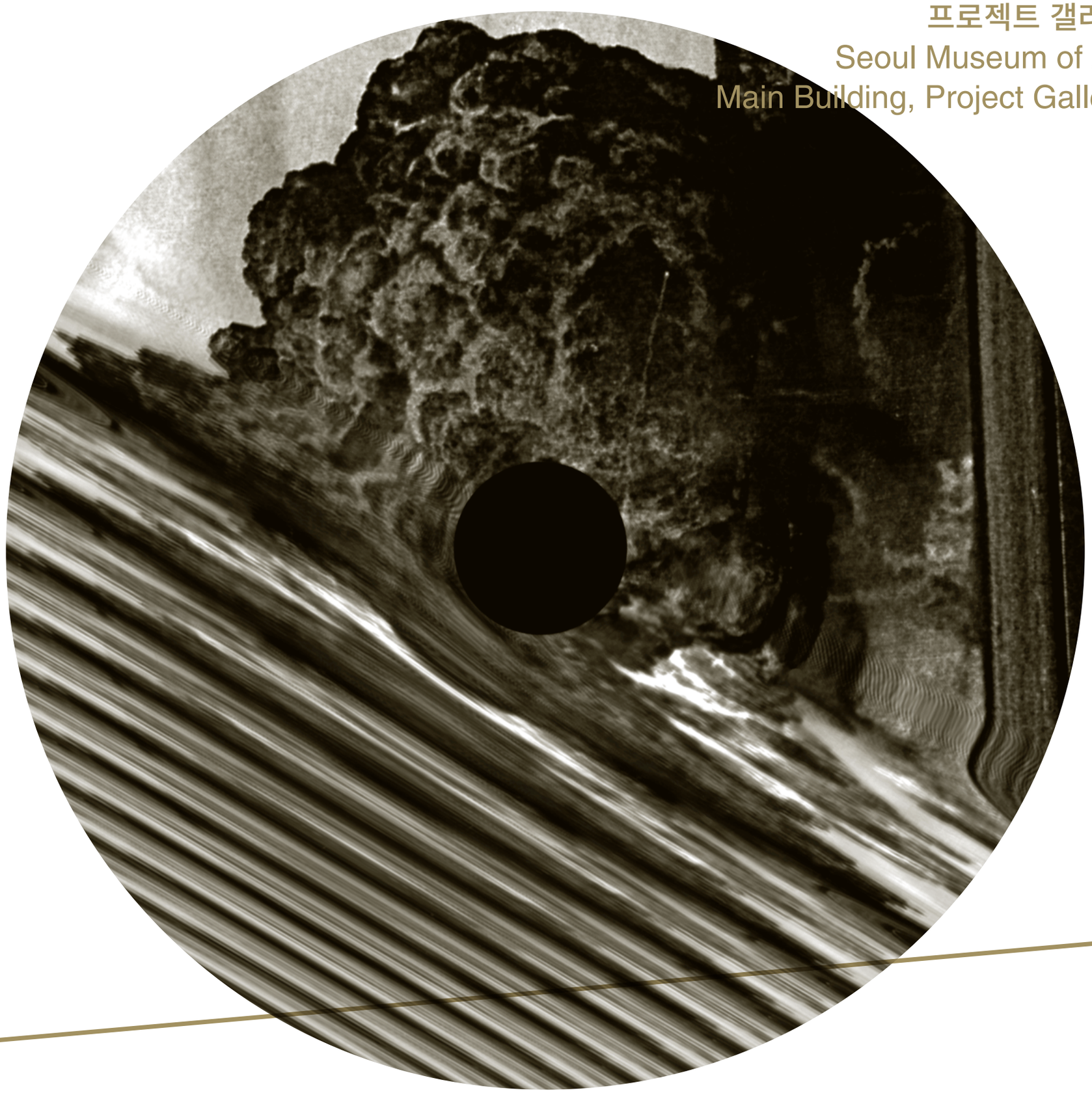
Seoul Museum of Art
61 Deoksugung-gil, Jung-gu,
Seoul 100-813 Korea
T. +82 2 2124 8800
sema.seoul.go.kr

Opening Hours
Tue–Fri AM10–PM8
Sat., Sun., Holidays AM10–PM7

Museum day
The 1st and 3rd Tuesday
extended to PM10

*Museum is closed on Monday

서울시립미술관 LUX TRANS 트랜스아시아영상문화연구소

2015.03.10–2015.05.17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프로젝트 갤러리
Seoul Museum of Art
Main Building, Project Gallery